FIXED INCOME
ISSUE REPORT

2022. 9.28

삼성증권

글로벌채권팀

김지만
Senior Analyst
jiman8.kim@samsung.com

정부와 한은의 국채시장 안정조치

침묵을 깬 정책적 조치에 화답한 채권시장

- 한은과 기재부 총 5조원의 국고채 단순매입 및 바이백 발표
- 한은과 기재부가 공동으로 국채시장 불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 제공
- 대외 여건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임을 인정해야겠지만 정책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 긍정적

한은과 기재부, 국채시장 안정조치 발표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국고채 단순매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총 3조원 수준이며, 지표물인 22-4호(3년), 22-8호(5년), 22-5호(10년)를 포함합니다. 비슷한 시점에 기재부 또한 국고채 바이백(조기상환)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2조원 수준입니다.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과 기재부의 바이백의 시행목적은 국채시장 안정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까?

팬데믹 이후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규모는 2020년 11조원, 2021년 6조원, 올해 상반기 4조원(2월과 4월 각각 2조원씩) 수준이었습니다. 이주열 총재 퇴임 이후로는 첫 단순매입입니다. 이번 발표된 한은의 단순매입 규모는 3조원으로 올해 2월과 4월 시행했던 2조원 수준을 넘어서고, 기재부의 바이백 2조원까지 더하면 시장에서 총 5조원의 국고채가 흡수되는 것입니다.

총 5조원의 국채매입(또는 바이백)은 930조원의 국고채 발행 잔액으로 보면 0.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정책 규모로는 과거에 발표된 안정화 조치들에 비해서는 큰 편입니니다. 올해 국고채 발행은 총 177.3조원 계획되어 있고 이 중 143조원이 발행되어 연말까지 남은 발행량은 34조원 수준인데, 남은 발행량의 1/7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 부분입니다. 최근 어려운 대외 환경에 더해, 한은에서는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이 바뀌었다며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채권시장은 더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충분한 수준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한은과 기재부가 공동으로 국채시장 불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는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연결됩니다. 대외 여건에 따라 휘둘릴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임을 인정해야겠습니다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치 발표 이후 장중 금리상승 폭은 상당히 되돌렸고, 5년 이하 구간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28일 3시 30분 현재 국고채 3년물은 전일 대비 9bp하락한 4.22%, 국고채 10년물은 전일보다 2bp 높은 4.23%에서 거래 중입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